

# LUEL Log

삶은 소중하다. 그러나 기록해야 한다. 이것은 <LUEL>이 임명한 문화인과 도락가들의 한 달 중에 가장 빛났던 순간에 대한 기록이다.

5.26~6.25



## 21세기 아날로그 소년

아직 도면을 펴고 연필을 쥐는 다. 터치 한 번에 무엇이든 가능한 이 시대에.

6 12 SAT

블과 몇 달 새 아이폰을 마련한 이들을 심심하게 볼 수 있다. 주머니에 전화기를 넣고 다니는 일이 마냥 신기했던 10여 년 전을 회상하기도 무색하게 이젠 손바닥보다 작은 물건 하나로 전화는 물론 인터넷으로 소통하고 갖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나는 컴퓨터 자판조차 승부하기 버거워 마우스란 놈의 힘을 빌려 가까스로 컴맹 수준을 탈피한 지경이니 이 조그맣고 똑똑한 기계를 맘껏 다루고 써먹는 게 부러움을 넘어 경이롭게 느껴진다.

얼마 전, 새로 인테리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의뢰받은 작은 레스토랑의 리모델링을 구상하며 언제나 그랬듯이 문구점에 들러 모눈종이와 쉼트지 등을 사 들고 와 연필과 자로 굵고 지우고 또 그리기를 반복했다. 캐드처럼 손쉽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즐비한 것을 알면서도 왜 또 난 종이를 펴고 연필을 쥐었을까? 급한 마음에 아직 서툰 마우스를 클릭하느니 조금은 덜 치밀하지만 하던 대로 하는 게 익숙해서인가, 아니면 이게 내 스타일이라고 똥고집이라고 부르는 건가.

디지털 기술의 사용은 이제 문화가 아닌 당연한 생활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 인간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일이 너무 많다. 엠마누엘 웅가르가 직접 핀을 찔러가면서 자신이 디자인한 드레스를 모델에게 입히고 가봉하는 모습에서 애초 머릿속에 떠오른 모습을 옮기는 일과 옷의 디테일을 마무리 짓는 과정엔 분명 창조자의 손길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다. 디지털 카메라가 한창 보급될 무렵, 한 사진가에게 필름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의 차이점을 물었다. "제 생각엔 사진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봐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설렘이 있느냐 없느냐겠지요." 설렘, 너무 편하고 자기 마음껏 쓸 수 있는 나머지 아름다운 순간을 볼 거를, 그리고 시간을 기다려 만날 여유를 갖지 못하면서 우리의 '심미안'은 서서히 희미해지고 있는 건 아닐는지.



◎ 심준현(와인바 '빠송' 오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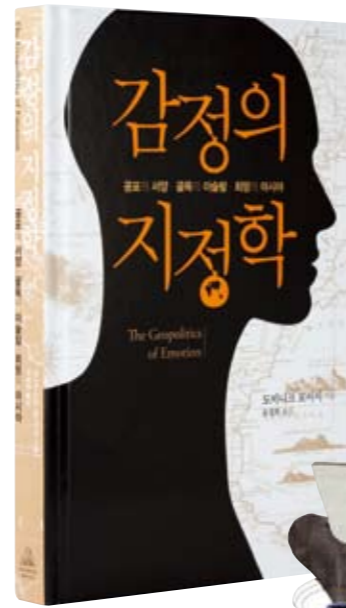
심준현은 음악을 들으면서 와인 한잔하며 수다를 떠는 '수다는 최고의 스승이다'라고 믿는 와인바 '빠송'의 오너다. 그가 일상에서 포착한 아름다운 음악과 달콤쌉싸래한 와인, 감각적인 인테리어 소품에 관한 이야기.

## MATTER OF FEELING

6 17 THU

세계사적 현상을 감정이란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떻게 해석될까?

현재 세계를 정치적으로 유럽권과 아시아권과 아랍권으로 나눌 수 있다면,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거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일까? 이 의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지만, 정치적 지도만큼이나 세계의 감정 지도가 중요하다며 세 문화권의 감정 지도를 제시한 도미니크 모이시의 신간 <감정의 지정학>에서 앞의 의문에 대한 답을 짐작해볼 수 있을 듯하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아시아는 굴욕을 희망으로 승화시킨 대륙이다. 중국과 인도를 대표적인 예로 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굴욕감이 경제 기적의 원동력이었다고 해석한다. 아시아가 굴욕을 희망으로 승화시켜 자신감으로 발전시켰다면, 아랍권은 굴욕감을 이겨내지 못했다. 게다가 그들의 찬란했던 과거를 완전히 잊고, 강대국들의 간섭에 의존하는 지경으로 전락했다는 무력감에 "그들에게 고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겠다"는 복수심을 불태운다. 반면에 유럽은 두려움이란 감정에 짓눌린 문화권이다. 그들은 20세기에만 두 번의 세계 전쟁을 경험했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아시아권에 위협받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는 테러의 위협에 시달린다. 유럽연합으로 탈출구를 모색해보려 하지만 유럽의 경계마저 모호하다. 이쯤 되면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이해된다. 그러나 세계가 더불어 사는 곳이라면 '희망', '굴욕', '두려움'이란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손에 놓여 있다. 선택하라"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평화와 화해이다. 평화와 화해는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면, 불안용이 무지에서 비롯된다. 하기와 요즘의 복잡한 세상은 단순한 것이 호소력을 갖는다. "귀찮게 타인을 알려고 하지 마라. 나와 결론이 다르면 무조건 반대하면 그만이다. 내 감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식의 단순한 구호는 근본주의적인 속성을 띠기 십상이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읽을 때는 우리의 현실이 떠오르며 쓴웃음이 났다. 왜 그랬을까? 관용이 넘치는 세계를 위해서는 타인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일 텐데.



◎ 강주현(번역가, 출판 에이전시 '팜합' 대표)

강주현은 번역가이자 세상에 숨겨진 보석 같은 책들을 찾아 국내에 소개하는 출판 에이전시 팜합의 대표다. 그가 생활에서 발견한 뜻밖의 책과 생각들을 보낸다.



## 영안모자의 추억

'메이드 인 코리아' 빈티지 야구 모자들을 추억하다.

6 15 TUE

중고등학교 때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 중 하나는 1970~80년대 경공업, 의복, 피혁 등의 제조 산업이었다고 배웠다. 돌이켜보면 80년대 우리가 선택하던 나이키 운동화나 크로스 컬러, 비전 스트리트 웨어 같은 티셔츠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였고,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서도 쉽게 살 수 있었다. 몇 년 전부터 동요 앞 벼룩시장(때론 피플의 쿨한 플라마켓이 아니라 '진짜' 벼룩시장)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이 '영안모자' 또한 이러한 역사의 부산물이자 오늘날에는 스트리트 웨어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만한 아이템이다.

위 사진에 있는 영안모자의 빈티지 베이스볼 캡들은, 89년에서 93년 사이에 생산된 것으로(샘플 태그에 표기되어 있는 날짜로 유추) 사실 92년은 영안모자가 전 세계(라고 해도 미국이 대부분이었겠지만) 베이스볼 캡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기록적인 성장을 하게 된 시점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 메이저리그를 비롯 각종 메이저 스포츠에 오피셜 유니폼을 공급하던 곳에 납품을 하게 됨으로써 90년대 초중반 스포츠 마니아들의 수집 대상인 이 모자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 베이스볼 캡들은 '피티드'라고 불리는, 요즘 사용되는 각각 사이즈에 맞게 나와서 크기 조절이 불가능한 모자가 아니라 '스냅-백'(뒤에 달린 '뚝딱이'로 사이즈를 조절하는 모자 스타일)이라는 것이 특징인데, 오늘날 스타터 같은 브랜드들의 80~90년대 스냅-백 스타일 모자가 다시 대유행하고 있기에 많은 스포츠웨어 팬들에게 어필할 만한 아이템이다(실제로 LA에 위치한 미국 서부 최대의 빈티지 스포츠웨어 스토어인 '앤드 스타일(And Still)'에서 영안모자의 당시 빈티지 아이템들을 팔고 있기도 하다). 최고의 설비와 노하우를 자랑하는 영안모자에서 지금은 스포츠 캡이 주력 상품은 아니지만, 그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스페셜 에디션이라도 다시 출시되었다면 하는 바람이 있다.



◎ 박민준(DJ, 프로듀서)

박민준은 DJ 소울스케이프 혹은 에스피오네라는 이름으로 좋은 음악을 전하고 좋은 음악을 만든다. 또한 그는 360 사운즈라는 DJ 집단의 디렉터이기도 하다. 이 모든 건 그가 좋은 음악을 찾아 듣는 데서 시작했다.

## 춤추는 군용시계

<춤추는 대수사선>이 성공하면서 영화에 나온 소품도 히트했다. 세 번째 속편에 등장할 시계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6 7 MON

7월이면 드디어 <춤추는 대수사선 3>가 개봉한다. 내가 일본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주인공 역을 맡은 오다 유지의 영향이라고 하면 오버일까? 아무튼 이번 영화에 앞서, 드라마부터 스피노프르 나왔던 영화까지 빼짐없이 봐온 나로서 당연히 그의 영화가 기다려질 수밖에.

영화의 주인공 아오시마 형사가 사용한 아이템들은 모두 히트를 친다. 1편과 2편에서 아오시마 형사는 스위스 군용 시계인 웬거를 주로 착용했고 담배는 인디언 모습이 그려진 패키지가 재미있는 아메리칸 스피릿을 피웠다. 3편에선 어떤 시계를 차고 나올까 사뭇 궁금해 찾아보니 역시 군용 시계인 트레저를 차고 있는 사진을 발견했다. '트레저 타임 6'라는 모델인데 루미녹스와 형태가 유사하다. 미국 군용 규격에 맞춰 생산하다 보니 모양이 비슷해진다. 미네랄 글라스에 쿼츠 무브먼트는 스위스 론다 제품이며 플라스틱 케이스와 나토 밴드 불리는 나일론 밴드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다. 시계 뒷면에는 'MIL-M-46374F'라고 각인되어 있다. 여기서 MIL 넘버는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 내구성을 인정받은 미군 군용 규격품 MIL SPEC으로 정식 사용된다는 영광의 각인이다.

하지만 밀리터리 워치라는 것이 실용성을 추구하기에 90년대 이전 생산된 제품들은 한번 착용 후 수리보다는 재지급하는 것이 비용적 측면에서 유리해 디스포저블, 즉 1회용이 되었고 그렇게 버려지는 시계들의 형광물질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1991년부터 만든 MIL-M-46374F 규격은 시계바늘에 형광물질을 칠하는 방식이 아닌 투명 용기에 봉인하는, 현재 자발광 야광 시스템이 일반화된 것이다. MIL SPEC이 까다로운 인증을 마친 튼튼한 시계란 뜻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스테인리스 재질보다는 플라스틱 재질이 더 많으며 굳이 MIL SPEC이 아니라도 카시오 지소크 같은 튼튼한 시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다. 실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미군들의 반 이상은 이런 군납 시계보다 지소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번 <춤추는 대수사선 3>에서 아오시마 계장이 이 시계를 선택한 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액션을 보여주겠다는 감독의 숨은 의도 때문 아닐까?



◎ 김정현(네트워크 엔지니어, 워치 컨설턴트)

김정현은 현재 일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루엘로그에서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시계보다는 함께 차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계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 콜마에서 보낸 어떤 주말

더 멀리 가고 싶은 마음과 이제는 쉬어가고 싶은 마음, 콜마의 독일식 집 나무 기둥에서 내 마음의 교차를 보았다.

6 19 SAT

교통수단을 놓고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나는 언제나 비행기보다는 테제베를 더 선호한다고 말한다. 비행기는 공항에 나가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또 공항은 항상 한 도시의 중심보다는 외곽에 위치하기에, 다시 중심지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테제베는 항상 한 도시의 중심지에서 중심지를 연결한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내에서라면 비행기보다는 언제나 테제베를 선호하게 된다.

프랑스 동부에 위치한 콜마는 독일에 무척이나 가까운 도시다. 이곳에서 열리는 '위지칼'이라는 페스티벌에 다녀오면서 콜마를 방문하고 조금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언제부터가 새로운 도시에 가게 되면 잘 알려진 곳도 시간이 가면 돌아보지만, 또 우연에 맡기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는 것에도 취미를 갖게 되었다. 흔히 파리처럼 가운데는 시간이 되면 마치 일본인 관광객처럼 파리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그만큼 파리의 골목골목에는 아귀자기한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다양한 표정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캔버스를 가지고 마음속에 한 장면이라도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담을 수 있다면 그 여행은 의미 있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콜마의 집 건축양식은 독일 쪽에 인접한 프랑스의 다른 지역들이 그러하듯이 나무를 뼈대로 하고, 그 사이에 흙을 채워 넣어 지은, 아주 반듯하지 않은, 그렇기에 소박하면서도 보면 저절로 기분을 좋게 하는 집들이다. 골목골목을 돌면서, 독일식 맥주를 한잔 마시면서, 그러다가 조그마한 창고 같은 집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 집이 왜 시야에 들어왔는지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 집을 지탱하는 나무 기둥의 형상이 마치 종이배를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박제가 된 종이배? 아니면 집이라는 형상으로 완전히 땅에 뿌리를 내린 종이배? 이 집의 형상은 여행과 정착이라는, 부유와 뿌리내림이라는 서로 양립될 수 없는 상태가 하나의, 그것도 매우 굳건한 형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해서 시선이 멈추었다. 모르겠다. 외국 땅에서 나이 마흔을 넘기면서, 계속 불안을 떠안고라도 더 멀리 가고 싶은 마음과, 이제는 조금 지쳐서 쉬어가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 반영되고 교차되었을지도.



☉ 김동준(재물 음악평론가, 피아니스트)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늦은 나이에 피아니스트로 데뷔한 고전음악 평론가 김동준. 출연히 파리로 떠난 그가 뒷북의 편지처럼 적어 보내는 소소한 소식들.

## CHEESE TO iPhone

6 16 WED

직접 써보고 고른 사진촬영 애플리케이션 세 개.

아이폰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예전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 그랬던 것처럼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진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연적으로 'photography' 카테고리 소프트웨어들을 언제나 살펴보는데, 관련 소프트웨어들이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실용적인 것을 골라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중에서 나의 아이폰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 촬영용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려 한다.



**ClassicPAN (\$0.99)** 디지털 카메라가 출시되기 직전 35mm 필름을 사용하는 자동 카메라에 '파노라마 모드'라는 것이 내장되어 나온 적이 있다. 실제 35mm 필름 규격(24mm X 36mm)의 아래와 위를 살짝 가려서, 오히려 더 작게 촬영되지만 가로가 긴 파노라마 사진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아이폰의 카메라에 그대로 적용한 소프트웨어가 바로 클래식 팬(ClassicPan)이다. 드라마틱한 이미지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으며 추가로 다양한 이펙트들을 사용할 수 있다. 단점은 이펙트들의 미리보기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 촬영을 해야만 결과를 알 수 있다.

### 3D Camera lite (Free)

애너글리프(Anaglyph) 이미지-옛날 입체영화나 사진에서 사용되던 적청 안경을 쓰고 보는 3D 이미지 방식-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왼쪽 눈을 먼저 촬영하고 약 6.5cm 오른쪽으로 아이폰을 수평 이동시킨 후 오른쪽 눈을 촬영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된다. 촬영 시 두 이미지를 자동으로 오버랩시키기 때문에 프리뷰를 보면서 적당히 간격을 조절해주면 간편하게 스테레오 사진을 만들 수 있다. 단 적청 안경을 별도로 구입해야만 한다. 구하기 힘들다고? 가장 쉬운 방법은 서점에서 아동용 입체사진 서적을 구입하는 것이다. 운이 좋다면 여분의 안경도 구할 수 있다!



**Hipstamatic (\$1.99)** 상당히 초반에 출시된 촬영용 소프트웨어. 다양한 렌즈이펙트와 필름이펙트 그리고 필터이펙트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이펙트는 추가 구입을 해야 한다. 클래식한 사진이나 토이 카메라 같은 이펙트를 제공하는 유사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출시되었지만 힙스타매틱(Hipstamatic)의 결과물이 가장 만족스럽다. 단점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비해 프로세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것과 유료라는 점.



☉ 임준형(상명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 전공교수)

디지털 사진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임준형은 사진작가로도 활동 중이다. 기계에도 남다른 애정이 있는 그는 매달 디지털 기기와 사진에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 소호의 음식 시장

6 7 MON

분초를 다투는 바쁜 뉴욕커도 멈춰서는 고소한 베이글과 진한 커피 향이 이끄는 곳. 바로 소호의 델리 '딘 앤 델루카'.

과거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소련과 미국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로 슈퍼마켓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초대형 규모의 매장과 그 안에 끝없이 연속되는 상품의 현란한 진열은 풍요로운 미국 지랑이자 철저한 상업주의의 상징이다. 마치 경마장처럼 넓은 주차장과 쇼핑 카트에 가득 담긴 물건은 미국을 대표하는 풍경으로 인식된 지 오래. 하지만 뉴욕커의 쇼핑 행위는 미국 타 도시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우선 뉴욕, 최소한 맨해튼에서는 주차장을 갖춘 대형 슈퍼마켓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중소 규모의 식료품 전문점(Food Specialty Market)이나 단일 업종의 상점들이 주를 이룬다. 최근 이들 전문점의 규모가 다소 커지고, 상품 구색이 다양해져 원스톱 쇼핑 개념의 증가를 지원하지만, 공산품과 약국까지 포함한 타 도시 슈퍼마켓과는 달리 음식물이 상품으로 집중되어 있다. 딘 앤 델루카(Dean & DeLuca)는 소호(Soho) 한가운데 자리 잡은 뉴욕의 4대 음식 전문 마켓 중 하나다. 1973년 소호가 창고와 제조 공장으로서 구성되어 있던 시절에 조지오 데루카(Giorgio DeLuca)는 작은 치즈 가게를 열고, 1977년 파트너였던 조엘 딘(Joel Dean)과 함께 대형 마켓으로 확장했다. 이들은 좋은 식자재를 위해서 전 세계를 배회하기도 했다. 이 매장의 디자인 또한 유명하다. 예술가이자 창립 파트너였던 잭 세글릭(Jack Ceglie)은 '노천 시장'이라는 새로운 컨셉트를 도입했는데, 슈퍼마켓처럼 일방적인 상품 진열과 일괄 계산이라는 개념을 탈피, 각 식자재 코너마다 직원이 상주해 구매를 도와주는 형식인 거다. 마치 재래시장의 골목골목을 거닐며 한 가지씩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과 닮았다. 소비자와의 친근함을 이끌어내는 이 개념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으며, 오늘날 대형 슈퍼에서도 부분적으로 이 개념을 따라 하는 중이다. 청결하고 정갈한 음식, 식자재의 디스플레이가 일품이다.



☉ 박진배(뉴욕 FIT 교수, 인테리어 디자이너)

유학 시절부터 시작해 이제껏 15년 넘게 뉴욕에서 살아온 디자이너 박진배. 뉴욕을 사랑하는 그와 함께 세계의 트렌드를 이끄는 이 도시를 산책해보자.



## 와인의 영혼

6 8 T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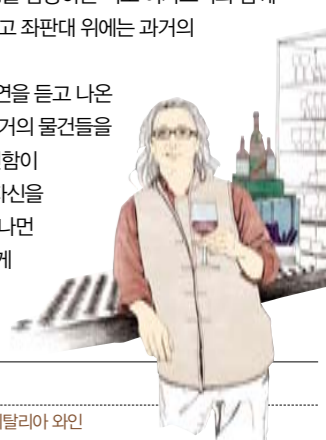
'네비올로 프리마리는 와인 시음 행사에 초대받아 이탈리아 피에몬테의 랑게 언덕으로 향했다.'

먼저 바롤로 마을에 위치한 유서 깊은 농장 자코모 브레차 소유의 호텔 '바롤로'에 짐을 풀었다. 브레차는 1885년에 설립된 농장이며 100년 전통의 레스토랑으로도 유명한 가문으로 훌륭한 포도밭을 갖고 있다. 농장의 주인인 브레차 할아버지는 그 모습만으로도 고집스러우면서도 늘 여유와 깊이를 갖고 있는 랑게의 전통적인 농부들의 느낌을 잘 대변해 주는 듯하다. 농장의 와인 역시 소탈함 속에서 은근한 깊이를 드러내는 와인들로 특히 브리코 사르마사 대표적이다. 도착한 다음 날인 월요일 오전부터 명가의 와인 80여 종이 5일 동안 매일 아침 우리를 맞이했다. 와인 병이 서 있는 모습은 그가 위치해 있는 장소에 따라 색다른 느낌을 환기시키며 와인을 통해 영혼을 담고 있는 생물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살아 숨 쉬며 진화하다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와인을 영적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담고 있는 물적 육신으로서의 와인 병들! 바롤로협회의 와인 시음장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소블리에들의 세심한 배려로 와인에게 전적으로 몰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음 분위기를 만들어주었다. 카스틸리오네 팔레토 마을에서 생산된 바롤로 와인들의 버티칼 테이스팅은 네비올로 프리마 행사와 별도로 작은 예배당 안에서 진행되었는데 필자는 우연히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곳의 와인 병들은 농장별로 구분되어 그 장소에 걸맞게 영적 기운을 자아내며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듯 서 있었다. 카스틸리오네 마을의 크뤼급 포도밭의 특징들을 알 수 있는 좋은 시음회였다. '빌레로'라는 같은 이름의 크뤼 포도밭들을 소유한 브로비아, 보롤리, 푸나네, 마스카렐로 농장에서 만든 제 각각의 와인들은 빌레로가 가진 우아하고 부드러운 웅장감을 공통분모로 각자의 개성을 잘 담아내고 있었다.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 혼자서 멈추고 자유롭게 향한 와인 시음은 시간의 흐름을 금방 놓치게 만들었다. 얼마쯤 흘렀을까 시계를 보니 벌써 2시간이 훌쩍 넘어 있었다. 그 후 와인 마케팅을 담당하는 디노 이카르디와 함께 망고라는 마을을 찾았다. 그곳에서는 장이 열리고 있었고 좌판대 위에는 과거의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예배당에서의 시음은 마치 작은 콘서트홀에서 독주 공연을 듣고 나온 듯한 여운을 안겨주었고 익명으로 한데 묶여 펼쳐진 과거의 물건들을 접하는 내 시선 너머로 뭔가 사라진 기억들에 대한 아련함이 젖어들기 시작했다. 열린 와인 병들, 시음자들을 통해 자신을 소진시키는 와인들, 이제 그들이 보여주는 감성들은 머나먼 곳에서 찾아온 누군가에게 의지해 그의 세월과 함께하게 되리라. 제각각의 영혼들에 대한 작은 기억이나마 옮겨겨 글을 서두른다.

☉ 안준범(와인 칼럼니스트)

안준범은 카페 겸 와인 바 '세조이'를 운영하는 해박하며 유쾌한 이탈리아 와인 전문가다. 최근엔 '와인 읽는 CEO'라는 책을 펴냈다.





## 구두는 피팅이 8할

에드워드 그린의 힐러리 프리먼 여사와 함께한 구두 피팅의 묘미.

작년 피티 위모를 방문했을 때 에드워드 그린 부스에서 겪은 작은 에피소드. 나는 120주년 전통의 영국 슈즈 브랜드 에드워드 그린을 국내에 들여오고자 부스를 찾았고 슈즈의 사이즈를 결정하던 차에 작은 설전이 벌어졌다. 발볼 넓이를 결정하면서 그곳에 있던 한 여인과 작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평균적으로 발볼이 넓은 한국 남성들을 위해 넓은 피팅 위주로 바잉하려면 나에게 그녀는 좀 더 좋은 피팅을 유지하려면 볼이 좁은 구두를 선택해야 한다고 고집스럽게 권했다. 당시 나는 한국 남성들의 발의 특징을 직접 보여주고 이해시키기 위해 직접 신발을 벗고 치수를 재면서 설명을 해야 했다. 공교롭게도 설전을 벌인 그녀는 에드워드 그린의 오너인 힐러리 프리먼 여사였다. 얼마 전 그녀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구두의 피팅에 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최고의 구두 메이커일수록 구두의 피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런 까닭에 구두의 형태를 결정짓는 라스트(구두골)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라스트의 길이 외에 발볼의 넓이 또한 선택이 가능하다. 즉 이 사이즈가 다양할수록 고객은 본인의 발에 가장 잘 맞는 구두를 골라 신을 수 있는 것이다. 힐러리 프리먼 여사는 에드워드 그린의 가장 큰 장점을 '최고의 피팅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한국의 에드워드 그린 마니아들을 초대해 그들의 발 사이즈를 직접 재고, 발볼의 넓이, 길이, 습관 등을 토대로 상담을 거쳐 고객에게 가장 최적의 피팅을 지닌 구두를 권해주었다. 그녀에게 한국 남성들의 발의 특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고, 내겐 에드워드 그린만의 피팅 포인트와 함께 구두를 선택할 때 피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좋은 경험이었다.



### ☞ 강원식(일 치르코 디렉터)

현재 슈즈 전문 숍 일 치르코 디렉터인 그는 국내 남성들에게 제대로 된 구두를 발 빠르게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문화를 향유하고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 베네치아에 울려 퍼지는 나폴리 찬가

'산타 루치아'와 '오 솔레 미오'는 정말 그만! TPO에 맞지 않는다고.

하늘과 바다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 신의 손길로 창조해놓은 듯한 베네치아.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가끔 나는 환상과 실재를 구분 못하게 된다. 베네치아 심장부에는 3.3킬로미터의 대운하가 관통하고 그 주변으로는 150여 개의 작은 운하가 모세혈관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운하에 늘어진 건물들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듯 매우 가볍게 느껴진다. 또 베네치아의 심장 산 마르코 광장에는 악사들이 연주하는 비발디의 밝은 선율이 바닷바람에 흩날리고, 마치 동화에 나올 듯 이국적인 분위기가 흠뻑 느껴지는 비잔틴 양식의 산 마르코 대성당은 시대와 양식이 다른 건물들과 절묘하게 조화되었다. 바다 위에는 눈부신 남국의 햇살 속으로 곤돌라들이 사라져간다. 그러다가 곤돌라가 지날 때면 곤돌라 사공이나 악사가 부르는 노래에 귀 기울여보기도 한다. 베네치아의 환상적인 풍광에 매료된 외국 관광객들은 사공이나 악사에게 으레 '산타 루치아'나 '오 솔레 미오'를 신청한다. 그런데 이런 광경을 지켜보는 베네치아 토박이들은 인상을 찌푸린다. 왜 그럴까? 한때 베네치아 시(市)정부는 곤돌라 사공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걸 금지시킨 적도 있다. '산타 루치아'나 '오 솔레 미오'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노래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만 베네치아와는 무관한 나폴리 노래인 데다가, 특히 '오 솔레 미오'는 가사가 순전히 나폴리말로 되어있어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베네치아 사람들의 기질이나 풍광이 나폴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들의 태도에 수긍이 간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남부를 알보는 북부 사람들의 자만심도 엿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보면 베네치아 사람들은 환상과 실재를 엄격하게 구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 ☞ 정태남(건축가)

재이탈리아 건축가인 필자는 건축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역사, 언어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기사 훈장을 받았다. 많은 책을 썼고 근작은 <로마역사의 길을 걷다>가 있다.